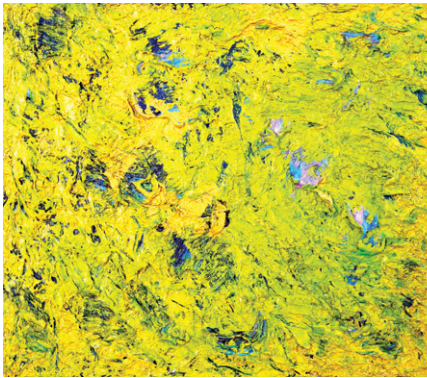


붓끝에서 피어난 구도자의 향기

비공 스님 개인전 5월 15일

비공 스님의 개인전 '구도자의 향기'가 5월 15~21일 인사동 M갤러리에서 열린다.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추상화 30점을 선보인다.



비공 스님의 추상화 작품

선방에서 공부하는 것과 그림을 그리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스님은 말한다. 그림 그리기가 곧 수행이라는 것이다. "수행하는 마음으로 1년 여 동안 그림을 그렸습니다. 형상을 그리다가 형상이 사라지고 또 그려 나가고 그것을 구도자의 향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제 그림이 시대와 함께 숨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스님은 붓터치와 화려한 색감으로 다양한 심상을 그림으로 표현해 낸다. 스님이 굳이 유화를 선택하는 이유는 불교예술이 옛것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좀 더 미래지향적이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우리 불교 문화는 너무 옛것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년 좀 지나면 무엇을 보여 줄겁니까? 이 시대와 함께하는 새로운 불교 문화를 배워 보겠습니다"

스님은 전시 오픈과 함께 5월 15일 음 악축제도 함께 연다. (02)773-0073

정혜숙 기자

환우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선율

5월 9일 불교진흥원·마하연 '찾아가는 음악회'

대한불교진흥원 주최하는 마하연의 '찾아가는 음악회-맑은 웅담샘 II'가 5월 9일 동국대 일산병원 1층 로비에서 열린다.



진흥원은 동국대 일산병원서 음악회를 연다.

대한불교진흥원은 "문화 나눔 포교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일산 동국대병원 환우들을 위한 공연으로 마련됐다"며 "부처님의 자비와 위리가 환우들에게 전해져 희망을 주길 바란다"며 취지를 전했다.

음악을 선사할 것이다.

이번 공연은 전통 국악곡뿐 아니라 팝과 영화 OST 등 대중들에게 친숙하고 편안한 음악 레퍼토리로 누구나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환자과 보호자 모두에게 음악이 주는 치유와 즐거

한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에서는 2012년부터 연간 3~4회에 걸쳐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 음악으로 치유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비구니 스님 따라가니 진리의 길이...

다큐 영화 '길 위에서' 개봉



이창재 감독

일년에 딱 두 번 산문이 열린다는 비구니 스님 수행도량 백흥암. 그곳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대중을 이루어 남자의 길을 가고 있다. 모두 세속의 일을 놓아버리고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지만 그곳에서도 웃고 웃고 시비하며 살아가는 일상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유학을 하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가한 상옥 행자, 동진 출가의 엄을 타고난 선우 스님, 인터넷 검색으로 불교 수행자의 길을 선택한 민재 행자 그들은 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백흥암에서의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 각각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들의 목표는 같다. 바로 깨달음.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기에 그들은 법연으로 맺어진 도반이라 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도 그 목표를 위해 온전히 하루를 기꺼이 행복하게 살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창재 감독(중앙대 교수)의 다큐 영화 '길 위에서'는 1년여 동안 백흥암 스님들의 삶을 담았다. 5월 23일 개봉을 앞둔 '길 위에서'는 이미 제6회 CINDI영화제 '버터플라이 부분11' 선정, 제 13회 전주 국제영화제 한국 경쟁 본선 진출작으로 오르며 호평을 받아왔다.

규율이 엄격한 선방, 그곳도 간간히기로 유명한 비구니 스님 선방을 남자들이 기거하며 찍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당연히 어려웠다고 이 감독은 말한다.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터라 안식년 휴가를 받고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스님 한 분의 인터뷰를 받는데 3개



비구니 수행도량 백흥암을 배경으로 한 '길 위에서'가 5월 23일 전국에서 개봉한다. 출연한 스님들의 영화 속 만행 장면.

'위대한 침묵' 보고 촬영 결심

수행도량 백흥암 배경

선방 공동체 1년 영상화

5월 23일 전국 동시 개봉

일이 걸렸어요. 일주일을 기다려 18분 분량 밖에 못 찍었던 적도 있었죠. 큰 스님 허락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방부를 뜬 수와 스님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1년 촬영 기간 동안 네번 쫓겨났습니다. 마지막에는 주지 스님도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해 눈물을 흘리셨죠"

이 감독이 영화를 찍기까지의 과정은 고행인 듯보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감독을 비구니 스님이라는 소재에 이토록 매달리게 했을까? 위빠사나명상센터 호두마을에서 2주 정도 수행을 하면서 만난 비구니 스님과 프랑스 수도원을 배경으로 한 영화

'위대한 침묵' 그것이 이 감독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다고 한다.

"평생 간혹선을 하다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겠다고 호두마을을 찾은 비구니 스님을 보고 저런 열정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어요. 또한 '위대한 침묵'을 보고 묵언은 우리 불가의 전통 수행법인데 이 영화가 이렇게 유명해졌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 하게 느껴졌어요. 이를 계기로 비구니 스님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보고 결심하게 되었죠"

이 감독은 2011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백흥암 스님들을 따라 다녔다. 그곳에서 만난 선우 스님은 동진 출가해 자연스럽게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된 스님이다. 최근 비구니계를 받은 선우 스님은 다시 태어난다면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대학도 졸업하고 스스로 선택해 출가하고 싶다고 말한다. 스님은 이 감독에게 이렇게 묻는다. "감독님은 출가 하실건가요? 아니면 다음 생에는요?"

이 감독은 그 물음에 선택 답을 못했다. 사실 이 감독 역시 20대 시절에는 출가를 진지하게 고민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백흥암에서 보낸 1년여 시간동안 결판만 하지 않았다면 출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절도로 스님들의 삶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정말 구족한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일생을 걸어도 족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행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스님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고 영화를 찍어 나갔다는 감독의 말처럼 영화는 스님들의 소소한 일상과 깨달음의 열망을 담담히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 가슴이 찡한 한편으로는 감동적이고 한편으로는 빡글 웃음을 짓게 만든다. 그렇게 백흥암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하루하루는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있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여대생 가수 28년 만에 수월 스님으로 대중 앞에

'노래로 듣는 부처님 말씀'...내레이션으로 새롭게 편곡

1985년 당시 한글로 번역한 반야심경에 곡을 붙인 노래로 화제를 일으켰던 여대생 가수 김미현 씨가 28년만에 수월 스님으로 돌아왔다. 당시 작업을 했던 작곡가 유승엽 씨와 함께 현대감각에 맞게 새롭게 편곡 '노래로 듣는 부처님 말씀'을 낸 것이다.

수월 스님의 당시 음반은 발매하자마자 공중과 방송을 타고 일주일만에 LP판 3만장이 팔릴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다.

주문 이후 법정 스님이 번역한 <법구경>, <군여대사의 보현 심행가>에서 발췌한 <예경 제불가> 등으로 3집까지 음반을 내기에 이

른다.

하지만 그는 이후 새로운 길을 걸었다.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쓰쿠바대학 대학원에 자폐장애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후 해인사로 출가해 스님이 되었다. 수월, 김미현씨가 받은 범명이었다. 수월 스님은 그동안 제방선원에서 10년간 수행을 하며 출가자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스님은 수행자로서 새로운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포교에 대한 원이 생긴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전하고자 하니 노래가 떠올랐다.

그렇게 수월 스님은 다시 작곡가 유승엽

씨를 만나 음반 작업을 시작했다. 이번 음반에는 '예경제불가' '백년을 살지라도' '발원문' 등 11곡의 곡을 담았다. 그리고 이 중 6곡은 내레이션을 붙여 새롭게 재구성했다. "듣는 분들이 편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도 내레이션에 이렇게 재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대중 여러분들도 이번 음반을 통해 편하게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음 합니다"

음악이든 수행이든 진심을 다해 일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수월 스님. 스님이 되고 나서 음성 포교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한다는 스님은 앞으로도 음성 포교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수월 스님은 '노래로 듣는 부처님 말씀'을 발매했다.

정혜숙 기자

심상 사진전 '암자에서 길을 묻다2'

5월 15일부터 국제선센터 등에서

불교문화사진동우회 심상(心像)의 24번째 사진전 '암자에 길을 묻다 2'가 대중들을 찾아간다. 불교문화 유산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보여주고자 마련된 이번 전시는 고승대사의 고행과 깨달음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강진형의 '여운'

전시는 △5월9일~15일 국제선센터 △5월16일~17일 석왕사 △5월25일 부천시 청 아트센터 등에서 각각 열린다.

연는 시간이었다"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내안의 평화를 찾아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010)4377-3228

심상은 "마음 속 길 하나 찾았다는 염원들을 렌즈에 담았다. 회원 모두가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 비움을 통해 자유로움을

정혜숙 기자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 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 x 29cm)

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 x 29cm)

한복밀납양초 - 4호 / 3호 / 2호 / 1호 / 밀대전사자 / 돈대전사자 / 원기동전사자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 / 약삭아광연봉연꽃양초 / 약삭1호예술연꽃양초 / 아광 연꽃초

100% 핸드메이드 자수방석

사이즈 및 소재 맞춤으로 작업가능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상품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수공예 전화상담 : H/P 010-3766-0242

사이즈 및 소재 맞춤으로 작업가능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상품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수공예 전화상담 : H/P 010-3766-0242

우창산업 SHC 삼환중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처: 장경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